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다양한 종교 문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 혹은 종교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교 종교학으로써 인간들이 발전시켜온 여러 문화나 문명의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비교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익히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국은 특히나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이 종교 문화 혹은 종교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독특한 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문학자. 인문학이 이제 특히나 자기성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삶 혹은 자기 존재, 자기가 속한 공동체, 혹은 시공의 맥락을 마치 이렇게 자기성찰이라는

이름이 이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타인 혹은 다른 맥락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을 이제 키우는

거라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은 일종의 증폭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증폭기라고 하는 게 오디오 시스템에서 우리가 소위 Amplifier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입력 신호든

증폭시켜주는 즉, 대한민국은 종교를 포함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나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뭔가 증폭시켜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보면 특히나 이런 한반도가 증폭기로써 외래의 것들을 수용해서 굉장히 증폭시켜서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교를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유교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사회 운영 혹은 정치 운영, 정치

철학으로써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500년 동안 그리고 이 유교가 조선이 이제

이렇게 다른 대한민국 혹은 일제시대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문묘제례라는 이름으로 공자와 한국의 여러 유교 성인들에

대한 제사를 아직도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로 우대석을 포함해서 우리 문화 일상에 퍼져 있는 유교적 가치관을

생각을 해보면 유교라고 하는 외래 사상이 한국에서 얼마큼 발전하고 뿌리 깊게 내렸는가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역시도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종교입니다마는 한국의 문화재의 70~80%

이상이 불교 문화재이고 산마다, 명산마다 사찰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교가 외래 종교이긴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에 와서 대단히 크게 성장하고 아주 깊게 우리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종교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교와 유교 외에 기독교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제 오래된 기독교인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마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청나라에
간 사신들이 가톨릭을 배워온 다음에 서학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신부님들을 이렇게 한국에 초청까지 했으니까
실제로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가톨릭을 저희가 선교,

배워왔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말할 필요가 없죠.
가톨릭과 개신교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서양 종교가

이질적인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거는 아마 전 세계 종교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 종교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발전하고 그다음에 많은 신도들을 보유한

제도화된 종교로써 뿌리내리는 동안에 민족종교.
천도교라든지 혹은 증산교라든지 원불교와 같은 우리 고유의

종교 전통 역시도 일제시대 이후, 지금은 이제 많이 교세가
약해졌습니다마는 아주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영향들을

끼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교, 불교, 기독교
그리고 이제 민족 종교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속이라는

혹은 무교라는 이름의 가장 원초적이고 오래된 형태의 종교를
여전히 강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사찰에

가보면 불교 사찰에 대웅전이라고 하는 고타마 싯다르타,
본존불을 모시는 큰 건물 위쪽에 그러니까 불교 사찰에 가장

높은 곳에 보면 주로 산신각 혹은 삼신각이라고 하는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토속신 산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외래 종교로써 들어오면서 산신 혹은
삼신이라고 하는 토착 종교의 신을 모시는 건물 자체를 불교

사찰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소위 이제 무속 혹은 무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혹은

뿌리를 여전히 이제 확인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종교 상황 못지않게 놀라운 한국 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이 종교들이 심각한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두 종교만 들어가서 그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평화적 공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종교를
갈등과 연관시켜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종교라는 게 어쨌든

절대적 세계관으로써 신도들에게 대단히 강력한 마음의
위안을 주기 때문에 그 위안이 마치 양날의 칼처럼 절대적

세계관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형들의 갈등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증폭시킨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유교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적인 종교 전통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간의 혹은 종교인들 간의 그런 방식이 아주 심각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가능한가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대에 한국 문화 쪽을 전공하고 계시는 종교학
전공자입니다마는 최준식 선생이 신기와 문기라는 이름으로

한민족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신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라는 게 결국은 인간이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차원. 그게 내면이든 혹은 자기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든 간에 이것과 접속해서 그 차원들을 알아내거나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신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신기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 무속인들 혹은 무교인들인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차원들과 접속해서 보이지 않는
차원들이 인식하는 특수한 능력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서 이제 무당 하면 우리가 이제 신기, 신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위 의식 변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 신기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어쨌든 수천 년 전부터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을
큰 활을 가지고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음주가무도 잘하는 음주가무라는 게 결국 뭘니까?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능력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는 엑스터시,
자기 바깥에 서서 존재, 다른 차원들을 인식하는 능력과

관련된 얘기라고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의 그런 신명 혹은
신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전통들이 공의,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만드는 대단히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는

백의민족으로서 평화를 애호하고 타민족을 침략 안 하는 거를
저희가 한편 굉장히 자괴감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상 남들에게 당하기만 한 거를 저희가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런 절대적

세계관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타인들을 공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대단히 보기
드문 자질이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이제 다양성 자체는 우리에게 대단히
풍요로움을 공동체 안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이질적인

것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오게 되는 갈등 혹은 갈등의
요인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저희가 이젠 이제 조심스럽게

다를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시다라는 젊은 처녀, 총각들이 이제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어쨌든 제일 처음 고려하는 요소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편 평화 애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세계관 혹은

절대적 세계관으로써의 종교적 가르침 혹은 교리 체계가 다를
경우에 일상적인 삶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종교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점도 저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민족 종교들, 천도교를 포함해서 원불교, 증산교에

이르는 여러 가지 민족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선천 시대와 후천 시대
즉, 인간 공동체를 운영하는 패러다임이나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미래 세대에 올 거다라고 이제 민족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후천으로 가게

되는 새로운 시대로 가게 되는 그 구심점 혹은 중심점의 역할
혹은 패러다임 모델의 역할을 대한민국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대단히 종교적인 예언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종교학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얘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적인 것들의 세계적인 보편성 같은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혹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좁은 공간 안에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대단히 평화적으로 공존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섞여서 마치
비빔밥이 새로운 맛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험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점에서 굉장히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가 현대 사회에 대단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모델은 이런 이질적인 절대적

세계관인 종교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기나 기회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 개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 혹은 신행 활동 자체가 현대 사회에

결맞게 변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은 다음 시간에 종교,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